

구례군 지난해 관광객 193만명 코로나 뚫고 전년비 20% 늘어

CNN 선정 화엄사 등 4대 사찰 지리산·섬진강·치즈랜드 각광

구례군이 지난해에만 200만명에 달하는 관광객이 찾는 등 세계적인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다. 구례군은 지난해 193만명의 관광객이 지리산과 화엄사 등 군 내 주요 관광지를 찾았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160만명 보다 20% 증가한 수치다. 관광객 계속 자료는 전국단위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시스템인 관광지식정보 시스템에 유·무료 입장객 수를 입력한 잠정수치다. CNN 주관 한국의 아름다운 사찰 33에 선정된 화엄사, 천은사, 연곡사, 사성암 4대 사찰에 126만명이 찾아 전체 관광객의 65%를 차지했다. 지리산과 지리산정원, 치즈랜드, 섬진강대숲길 등의 힐링·생태관광지에도 42만명이 다녀갔다. 한국관광공사 선정 인스타그램을 빛낸 올해의 여행지 4위에 선정된 지리산치즈랜드가 전년 대비 574%, 생태탐방연수원 249%, 섬진강대숲길

138%의 증가세를 보였다. 수해와 코로나19로 임시 휴장된 지리산온천과, 섬진강 어류생태관, 농협중앙회구례연수원 등은 감소세를 보였다. 군은 윤스테이 촬영지로 유명한 쌍산재, 드라마 촬영지, 산수유마을, 지리산둘레길 등 많은 관광지가 계속되지 않아 실제 관광객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군은 새로운 관광수요에 발맞춰 지리산정원 인프라 확충과 수달생태공원 개장, 섬진강·오산·화엄사 등 4대 권역별 사업을 핵심 관광정책으로 추진해 전국 최고의 생태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한다는 방침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지리산과 섬진강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문화자원, 힐링·생태관광자원이 비대면 관광 트렌드에 적합했다"며 "MBN 자연스튜디오와 'tvN 윤스테이·지리산' 등이 방영되면서 국내외 인지도 상승이 관광객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CNN주관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사찰에 선정된 화엄사 전경.

순천시, 日 이즈미시와 우호 교류 다짐

화상회의 다양한 교류사업 논의

순천시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국제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일본 가고시마현 이즈미시(出水市)와 화상회의를 통해 지자체간의 지속적인 우호 교류를 다짐했다. 시이노키 신이치(椎木伸一) 이즈미시장은 "순천시는 랍사르습지뿐만 아니라 도서관 활성화 등 이즈미시가 배워야 할 점이 많은 도시"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미래지향적 협력을 이어가자"고 말했다. 허석 순천시장은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면 내년에 개최하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이즈미시를 초대하겠다"고 화답했다.

순천시와 이즈미시는 앞서 지난 9일 실무자 화상회의를 통해 청소년 교류 활성화와 교류 10주년 기념 행사,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올해 사업내용을 논의했다. 또 인안초등학교(순천)와 와라비시마초등학교(이즈미)는 Zoom을 통한 온라인 교류를 실시했다. 일본 가고시마현 북서부에 위치한 이즈미시는 일본 제일의 두루미 도래지다. 일본 유일의 두루미 박물관이 조성돼 있다. 일본에서 볼 수 있는 약 600여종의 조류 중 300여종을 볼 수 있을 만큼 '새 관찰의 성지'로 불린다. 순천시 관계자는 "자매도시간 서로의 선진분야를 벤치마킹하며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비대면 방식으로도 해외도시와의 교류를 꾸준히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

보성 벌교갯벌 '겨울진객' 흑두루미의 비상



지난 15일 보성군 벌교읍 봉황마을 인근 갯벌을 찾은 흑두루미떼가 장관을 이루고 있다.

〈보성군 제공〉

광양시 "멧돼지·고라니 등 야생동물 피해 80%까지 지원합니다"

광양시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 발생에 따라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광양시에 주소와 경작지를 두고 영농 등을 하는 농·어·임업인으로 농작물·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이 야생동물에 피해를 당한 경우와 야생동물로부터 직접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가 해당한다. 시는 피해 면적, 소득액, 작물의 생육 비율, 피해

율 등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표준소득자료 단가에 따라 산정한 피해산정금액의 80%를 지원한다. 2022년 12월까지 시행되며, 피해 현장을 보존해 토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피해보상 신청을 하면 손해사정사의 조사를 통해 농작물 등 보상금은 최대 500만원, 인명피해 보상금은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된다. 시는 최근 4년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으로 2018년 29건 1200만원, 2019년 36건 1400만

원, 2020년 25건 1800만원, 2021년 20건 800만원을 지급했다. 김재희 과천시 자원순환과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과 피해보상사업을 최대한 지원하고, 포획 활동 및 포획을 임대사업으로 유해야생동물 개체 수를 줄이는 등 농·임업인의 피해를 줄이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여수 성산공원 내

어린이물놀이장 7월 개장

여수 성산공원에 어린이물놀이장이 문을 연다. 여수시는 화장동 성산공원 내 '어린이물놀이장'을 7월 개장한다고 밝혔다. 어린이물놀이장은 3월 착공해 오는 6월 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성산공원(사진)은 조성된 지 20여년이 지난 근린공원으로 여수시는 2020년부터 68억원을 투입해 보도블록, 체육시설, 산책로 등을 정비하는 '성산공원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성산공원 리모델링 공사는 현재 공정을 70%로 진행 중이며 공원 호수를 가로지르는 인도교를 설치하고 장미동산 확대, 수변데크(270m), 탄성포장 산책로 등을 조성했다. 특히 설 연휴에 맞춰 개방한 호수 수변데크 산책로는 잉어와 수생식물 등을 조망할 수 있는 진수공간으로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여수시는 현재 진행 중인 족구장 정비, 보도블



록 교체, 휴게시설 확충 등 다른 공정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해 다양한 기능을 갖춘 명품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성산공원이 단순한 공원의

기능을 넘어 지역 주민들의 생활문화 거점이자 진수공간으로 재탄생하고 있다"며 "앞에 유익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공사를 진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여수=김청화 기자 chkim@

피쉬데이(주)는 2015년에 설립되었으며, 연매출 100억원, 사원수 20여명 규모의 평균나이 33.6세, 20~30대의 젊은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농수산물 유통전문 업체입니다. 광주/전라남북도 전역에 유통 판매하고 있으며, 피쉬데이 직영점을 포함 백화점, 하이퍼마켓 입점운영과 자사 홈페이지, 온라인마켓 등 온오프라인을 겸비한 다양한 유통채널을 직접 운영하며 탄탄한 영업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VOYAGE TO GROWTH, WITH FISHDAY
피쉬데이와 함께 성장해 가는 항해



피쉬데이 정규직 채용공고

| 모집분야 |

모집분야	웹디자인	매장 영업 (수산 판매/관리)	물 류
직무내용	포토샵 / 일러스트 능숙자 상품 판매를 위한 상세페이지 제작 SNS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관리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근무자 1대1 코칭으로 초보자분도 어려움 없이 간단한 생선손질부터 회, 초밥까지 배울수 있는 기회	수산물 유통 (냉동탕차 납품/배송) 1톤 냉동탕차 배송 수산물을 광주/전남권 매장별로 배송
근무시간	주5일 (월~금) 09:00~18:00	주6일 (격주휴무) 09:30~19:30	주6일 (월~토) 04:30~13:00
우대사항	관련 자격증, 경력 1년 이상	차량소지자 우대 (전남권 근무시 유류비 지원)	자동차 운전면허(필수)

| 주요복지 |

업무 숙련도에 맞춰 빠른 진급과 급여 인상 보장.
명절 상여금 (추석, 설/연2회), 하계휴가비 지원, 내일채움공제 가입, 생일상여금, 가정의달 선물 증정 등

| 문의 연락처 | 1522-4268, 010-7628-9292